

2019년 7월 24일

# 보도자료

이 자료는 7월 25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 
주시기 바랍니다. 단, 통신/방송/인터넷  
매체는 배포시부터 취급 가능

## 제 목 : 최근 부산·경남지역 고용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

- 한국은행 부산본부(본부장 차현진)와 경남본부(본부장 노충식)는 최근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권역내 고용상황 변화를 분석하고 고용위기에 대한 진단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“최근 부산·경남지역 고용변화 요인 분석 및 시사점”을 작성하였음

붙 임 : 「최근 부산·경남지역 고용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」

문의처 : 부산본부 경제조사팀 이영호 과장, 경남본부 기획조사팀 이희영 과장  
Tel : 051-240-3852, 055-260-5091, Fax : 051-240-3859, 055-260-5099  
E-mail : bokbusan@bok.or.kr, gyeongnam@bok.or.kr

“한국은행 경남본부의 보도자료는 인터넷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  
(<http://www.bok.or.kr> ⇒ 좌측상단 지역본부 ⇒ 경남본부)



한국은행 경남본부

## <요 약>

# 최근 부산·경남지역 고용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

## I. 검토배경

- 최근 수도권으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에 대응하여 동남권에서 경제협력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 성장의 중요요소인 권역내 고용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에 관심이 크게 고조
- 이에 따라 부산·경남 지역의 주력사업 침체에 따른 실직과 고용의 이동상황,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지역내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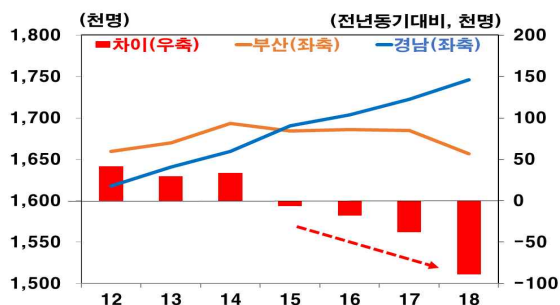
## II. 최근 부산·경남지역의 고용변화 요인분해

- 본 연구에서는 고용변화 요인을 ① 인구, ② 경제활동참가율, ③ 취업률 등 3개 요인으로 분해<sup>■</sup>(FRB of Kansas City(2006), UNDP(2015) 등)하고 각 요인별 특성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

■ 
$$E_t = P_t \times \frac{L_t}{P_t} \times \frac{E_t}{L_t} = P_t \times l_t \times e_t$$
  
 ( $E_t$  = 취업자수,  $P_t$  = 15세 이상 인구,  $L_t$  = 경제활동인구,  $l_t$  = 경제활동참가율,  $e_t$  = 취업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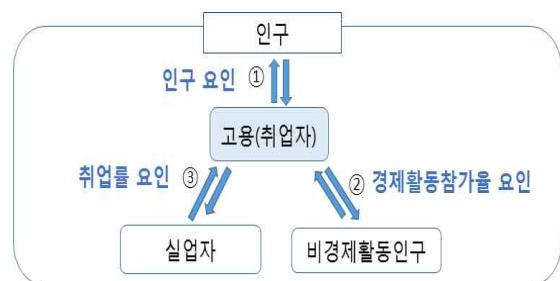
- ① 인구요인은 자연인구 증감, 지역간 인구이동 등으로 인한 고용변화를 의미
- ② 경제활동참가율 요인은 정부일자리 정책, 노동시장 잔류 변화 등으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로의 순이동 변화를 의미
- ③ 취업률요인은 신규 노동수요, 노동이동성, 비자발적 해고 증감 등으로 인한 실업자에서 취업자로의 순이동 변화를 의미

**취업자수 추이(부산·경남)**



자료 :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

**고용변화 요인 도식화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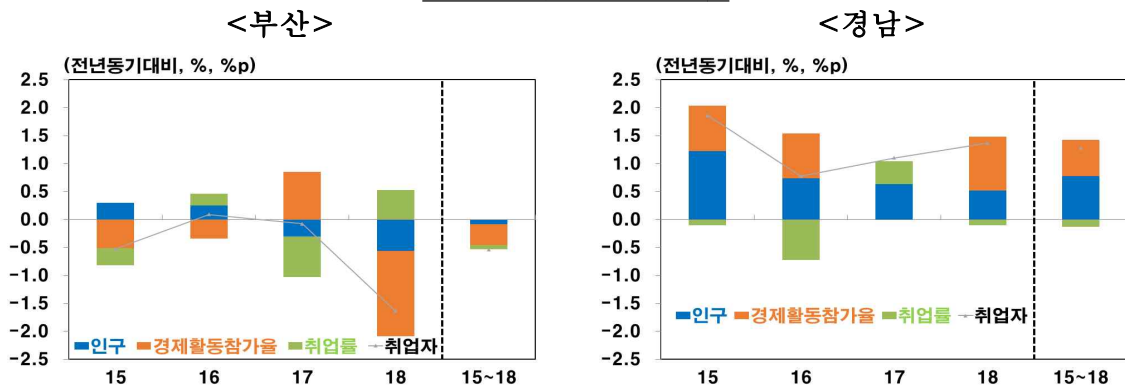
## 고용변화 배경

요인		고용증가 배경	고용감소 배경	성격
인구 요인	인구 → 취업자	·자연인구 증가 ·인구 순유입	·자연인구 감소 ·인구 순유출	사회적 사회적
경제 활동 참가 율 요인	비경제활동인구 → 취업자	·정부일자리 정책 ·고령층, 여성 등 경제활동 참가성향 증가 ·부가노동자 효과	·정부일자리 정책 ·고령층, 여성 등 경제활동 참가성향 감소	정책적 사회적
	취업자 → 비경제활동인구	·노동시장 잔류 증가	·노동시장 잔류 감소 ·실망노동자 효과	경기적 경가사회적 경기적
취업률 요인	실업자 → 취업자	·업황 개선으로 신규 노 동수요 증가 ·노동이동성 증가 ·비임금근로자 증가 ·노동시장 효율성 감소	·업황 악화로 신규 노동 수요 감소 ·노동이동성 둔화 ·비임금근로자 감소 ·노동시장 효율성 증가	경기적 경가사회적 경가사회적 사회적
	취업자 → 실업자	·비자발적 해고 감소	·비자발적 해고 증가	경기적

자료 : FRB of Kansas City(2006, 2018), UNDP(2015), 한국은행(2008), IZA(2010) 등

- 분석 결과, 2015년 이후 부산지역 고용은 전반적으로 인구, 경제활동참가율, 취업률이 모두 하락하면서 위축된 반면, 경남지역 고용은 취업률이 하락한 가운데 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면서 확대되었음

### 고용변화 요인분해<sup>1)</sup>



주 : 1) 부산·경남본부 추정, 자료 :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

## Ⅲ. 요인별 변화배경 비교분석

### (1) 인구요인 변화배경

- 부산·경남 공통적으로 자연인구의 고령화가 고령층(60대이상)의 고용증가, 40대이하의 고용감소 배경으로 작용한 반면, 청년층(15~29세)의 경우 서울·경기지역으로의 이동이 청년층 고용위축 배경으로 작용

- 자연인구는 두 지역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베이비부머 세대(1955~1963년생)가 2015년부터 60대에 진입하면서 고령화가 크게 진전
- 청년층(15~29세)은 지역내에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, 취업정보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서울·경기지역으로 다수가 이동
- 개별적으로는 중장년층(30대 이상)이 부산에서 경남으로 이동함에 따라 경남의 고용증가 요인으로 작용
- 교통접근성 개선,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 등으로 부산에서 경남으로 이동

## (2) 경제활동참가율 요인 변화배경

- 부산·경남 공통적으로 정부·지자체 일자리 정책, 노동시장 잔류 증가 등이 청년층·고령층 고용을 증가시키는 배경으로 작용
- 공공기관 청년인턴제, 노인일자리 사업 등 청년층·고령층 일자리 정책 등으로 해당연령층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취업자로 이동
- 혼인·출산율 감소, 고령층의 노후대비 필요성 증가 등으로 청년층·고령층이 은퇴를 늦추는 노동시장 잔류현상이 증가
- 50대의 경우 부산은 실망노동자 효과가 고용감소 배경으로, 경남은 부가노동자 효과가 고용증가 배경으로 작용
- 부산은 제조업 고용 위축과 함께 도소매, 숙박음식 등의 취업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이동이 증가(실망노동자효과)
- 반면, 경남은 제조업 고용 위축에도 가계소득 감소, 취업가능성 증가 등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로의 이동이 증가(부가노동자효과)

## (3) 취업률요인 변화배경

- 부산·경남 공통적으로 제조·금융·운수업 노동수요 감소, 제조업 실직자들의 권역내 노동이동 감소 등은 고용감소 배경으로, 보건사회복지 수요 증가 등은 고용증가 배경으로 각각 작용

- 최근 조선업, 조선기자재(금속가공), 자동차 등 제조업 업황 부진으로 비자발적 해고가 증가하고 신규 노동수요가 감소
  - 제조업 실직 임금근로자들의 지역내 재취업(노동이동)이 감소하고, 지역외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권역내(부산,경남)보다는 서울·경기로 재취업함에 따라 권역내 고용흡수 기능이 제약
  - 비대면 거래방식 증가, 물류자동화, 해운업 업황악화 등으로 금융·운수업의 노동수요가 감소
  - 고령층 인구비중 증가, 정부정책 등으로 보건사회복지 노동수요가 증가
- 개별적으로 부산은 숙박음식의 노동수요 감소 등이 고용감소 배경으로, 경남은 숙박음식 자영업자 및 농업 무급가족종사자 증가 등이 고용증가 배경으로 작용
- 부산 숙박음식업은 이미 시장이 포화상태인데다, 내수부진, 외국인 관광객 감소,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노동수요가 감소
  - 경남은 상대적으로 고용여력이 있는 숙박음식업에 실직자 등이 자영업자로 진입하였으며, 여성농업인 지원정책 등으로 고령층 여성이 농업 무급가족종사자로 진입

#### (4) 종합평가

- 인구 측면에서는 향후 신도시 효과 완화 등으로 부산에서 경남으로의 인구가동이 점차 완화될 가능성은 있으나, 저출산,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자연인구의 고령화 및 청년층 유출 완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
- 경제활동참가율 측면에서는 향후 50대의 실망노동자 및 부가노동자 효과가 경기에 따라 변화되는 가운데, 혼인·출산을 저하, 고령층 소득·자산 제약 등이 청년층·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당분간 높일 가능성
- 취업률 측면에서는 향후 조선업 업황 개선 등으로 제조업 노동수요 부진이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, 권역내 노동이동성 제약, 숙박음식업 경쟁심화 등이 취업률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

⇒ 최근 부산·경남 두 지역 고용시장 변화로 볼 때 지역경제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용여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

#### 최근 부산·경남 고용변화 배경(2015~2018년)<sup>1)2)</sup>

요인	요인변화		요인변화배경		
	부 산	경 남	공통배경	부산	경남
인구	↓	↑	·고령층 자연인구 증감(+) ·40대이하 자연인구 감소(-) ·청년층의 서울경기로의 인구유출(-)	·경남으로 순유출(-)	·부산에서 순유입(+)
경제활동 참가율	↓	↑	·정부 일자리 정책(+) ·청년·고령층 노동시장 잔류 증가(+)	·50대실망노동 자효과(-)	·50대부가노 동자효과(+)
취업률	↓	↓	·제조업 신규노동수요 위축 및 권역 내 노동이동 감소(-) ·운수·금융업 신규노동수요 감소(-) ·비자발적 해고 증가(-) ·보건사회복지업 신규노동수요 증가(+)	·숙박음식업 노동수요 위축(-)	·숙박음식업 자영업자, 농업무급 가족종사자 증가(+)

주 : 1) ↑는 상승, ↓는 하락, 2) (+)/(-)는 고용 증가/감소 배경

## IV. 정책적 시사점

### (부산·경남 공동대응)

- [공동성장 전략강화] 산업·학계·지자체간 협력네트워크 구축, 고부가가치 제조 및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부산과 경남의 주력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높임으로써 권역(부산-경남)내 노동수요를 확충
  - 부산-경남지역은 대규모 제조업체, 중소기업 소재·부품업체, 대학, 연구소 등 자체적 성장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, R&D, 설계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도 높음
- [노동이동성 강화] 지자체간 일자리 매칭 등 정보 교류 확대, 실직자들에 대한 재교육 강화를 통해 실직자들이 권역내 유사업종에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인력을 보존하고 권역내 고용완충기능을 제고
  - 특히 제조업의 경우 부산·경남의 주력 제조업이 유사하고 보완관계를 보이는 만큼 권역내 재취업 기회 확대의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
- [금융지원 강화 및 정보교류 확대] 업황 악화 등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, 지역경제에 대한 지자체, 유관기관간 연구·정보교류 확대 등을 통해 급격한 고용 위축을 완화

- 한국은행 지역본부도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통한 지역업체 금융지원 강화, 유관기관과의 연구교류 확대 등을 추진중
- **[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집중 완화]**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등 청년층 선호일자리 육성, 일자리 정보 확충을 통한 청년층의 지역이탈 유인을 해소함으로써 인구 제약을 완화
  -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지원 강화,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적용지역 통합 등을 통해 지역 학생들의 권역내 취업을 높이고, 지자체를 중심으로 취업박람회 적극 유치, 취업준비 인프라 구축 등으로 권역내 취업준비과정을 지원
- **[저출산 완화]** 육아부담 및 경력단절을 완화해 줌으로써 혼인·출산율을 높이고 자연인구 감소 및 고령화를 완화
  - 출산율이 높은 주요국 사례를 연구하고,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, 유연근무시간제 확대, 보육 시설 지원 강화, 출산후 복직시 재정지원강화 등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

### **(부산·경남 개별대응)**

- **[부산 : 경제활동참가율 제고]** 관광산업 육성, 숙박음식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취업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일 필요
  - 해양 도시로서의 부산, 역사 속의 부산 등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, 회식·모임 축소, 간편식 선호 등 구조적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숙박음식업체들에 대한 컨설팅 강화
- **[경남 :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]** 최근 고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농업 무급가족종사자, 숙박음식 자영업자의 고용 증가세는 경쟁심화, 저생산성 등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만큼 이들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필요
  - 법인화, 차별화된 작물 재배 등을 통해 농업부문 경쟁력을 높여주고, 서비스 차별화 교육 등을 통해 숙박음식업체 경쟁력을 강화하여 동 업종의 고용창출력을 확보

### **(정부차원의 고용통계 인프라 강화)**

- **[경제활동상태 변화 통계 구축]** 미국, 유럽과 같이 경제활동상태 이동 변화(Labor force status flows)\*에 대한 통계가 구축될 경우 지역고용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

\* 인구, 실업자,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로의 유입·유출 규모를 매월 발표

- [개별기업 수준의 미시통계 구축] 지역내 취업률에 큰 영향을 주는 주력 대기업별로 구체적인 협력사 지도를 구축함으로써 업황 변동이 매출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·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
- 조선, 기계, 전자 등 주력 대기업에 대한 1~3차 협력사 목록 및 매출의존도 등 기업간의 연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통계에 포함하고, 대기업 철수·폐업시 협력업체 실직자 규모를 유추할 수 있는 고용지도를 작성
- [고용통계 소득부문 보완] 고용의 양적 증감과 함께 고용의 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고용통계에 “소득구간별 취업자” 등의 지표를 보완할 필요

<참고>

부산·경남 고용현황(2018년)<sup>1)</sup>

(천명)

총인구(추계인구) 부산 3,418, 경남 3,364	
생산연령인구(15세 이상, A) 부산 2,975, 경남 2,845	
경제활동인구(B) 부산 1,729, 경남 1,801	비경제활동인구(C) 부산 1,247, 경남 1,044
취업자(D) 부산 1,657, 경남 1,746	실업자(E) 부산 71, 경남 54

주: 1) 경제활동참가율 :  $B/A \times 100$  (부산: 58.1%, 경남: 63.3%)  
 고용률 :  $D/A \times 100$  (부산: 55.7%, 경남: 61.4%)  
 실업률 :  $E/B \times 100$  (부산: 4.1%, 경남: 3.0%)  
 취업률 :  $D/B \times 100$  (부산: 95.9%, 경남: 97.0%)



# **최근 부산·경남지역 고용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**

**2019. 7**

**한국은행 부산본부 · 경남본부**

작성자 : 부산본부 경제조사팀 이영호 과장  
경남본부 기획조사팀 이희영 과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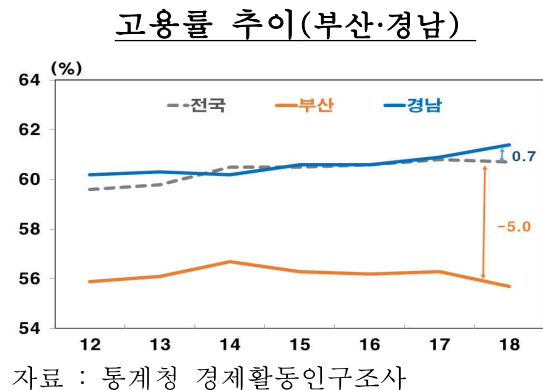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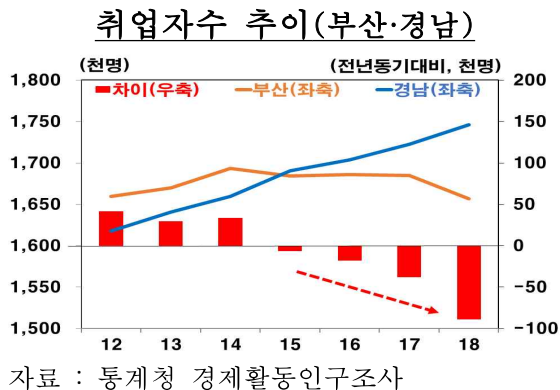
## 차 례

I. 검토배경 .....	1
II. 최근 부산·경남지역 고용변화 요인분해 .....	3
1. 고용동향 .....	3
2. 고용변화 요인분해 .....	5
III. 요인별 변화배경 비교분석 .....	9
1. 인구 요인 변화배경 .....	9
2. 경제활동참가율 요인 변화배경 .....	12
3. 취업률 요인 변화배경 .....	15
4. 종합평가 .....	20
IV. 정책적 시사점 .....	2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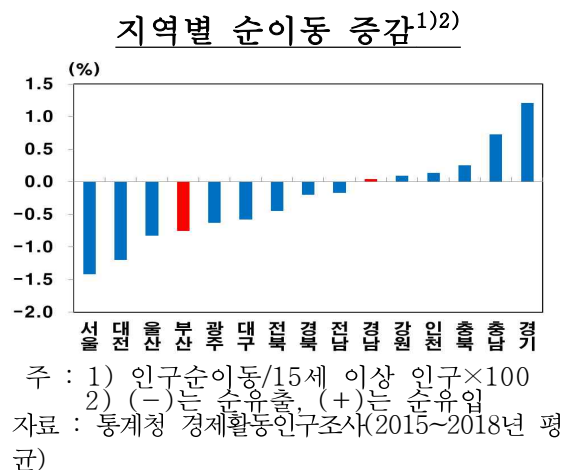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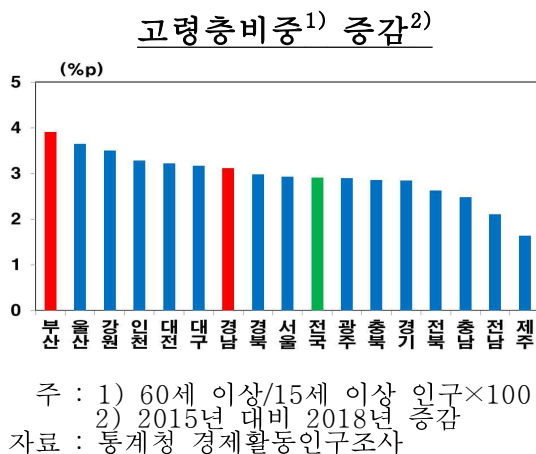
- 〈참고〉 1. 부산·경남 고용현황  
2. 고용변화 요인분해 모형  
3. 조선업 종사자의 재취업 동향

## I. 검토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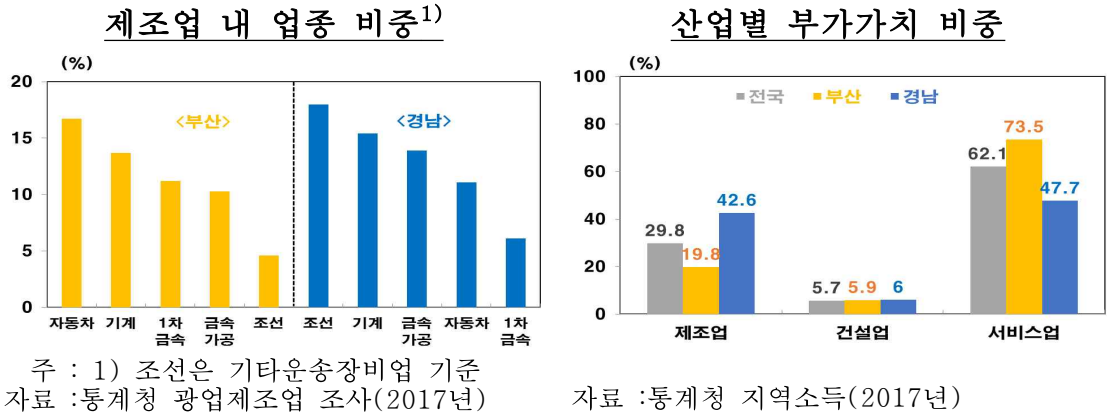
- 최근 수도권으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에 대응하여 동남권에서 경제협력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 성장의 중요 요소인 권역내 고용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응에 관심이 크게 고조
- 그러나 2015년 이후 권역내 고용상황을 보면 부산은 고용(취업자수)이 전반적으로 정체·감소세를 보인 반면 경남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두 지역간 경제적 결속력 및 연계성에 관한 의구심이 대두
  - 2018년 부산 고용률(55.7%)은 전국(60.7%) 대비 5.0%p 하회하고 있는 반면 경남(61.4%)은 0.7%p 상회



- 일반적으로 고용상황은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등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며, 부산·경남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남
  - 인구구조 측면에서 보면 고령층비중 확대 등이 부산·경남 고용변화 공통 배경으로, 인구순이동 등이 개별배경으로 작용



- 산업구조(GRDP)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 내 주력 업종이 조선·자동차 등으로 유사한 반면, 전체산업에서는 부산은 서비스업, 경남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각각 고용변화의 공통 및 개별배경으로 작용



- 본 보고서에서는 2015년 이후의 부산·경남의 고용동향을 살펴보고, 고용변화 요인을 인구\*(15세 이상), 경제활동참가율\*, 취업률\*로 분해하여 각 요인별 변화 배경을 비교 분석한 뒤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

\* 고용현황 및 용어 정의는 아래<참고1> 부산·경남 고용현황\*을 참조

**<참고1>**

**부산·경남 고용현황(2018년)<sup>1)</sup>**

(천명)

총인구(추계인구) 부산 3,418, 경남 3,364	
생산연령인구(15세 이상, A) 부산 2,975, 경남 2,845	
경제활동인구(B) 부산 1,729, 경남 1,801	비경제활동인구(C) 부산 1,247, 경남 1,044
취업자(D) 부산 1,657, 경남 1,746	실업자(E) 부산 71, 경남 54

주: 1) 경제활동참가율 :  $B/A \times 100$  (부산: 58.1%, 경남: 63.3%)  
 고용률 :  $D/A \times 100$  (부산: 55.7%, 경남: 61.4%)  
 실업률 :  $E/B \times 100$  (부산: 4.1%, 경남: 3.0%)  
 취업률 :  $D/B \times 100$  (부산: 95.9%, 경남: 97.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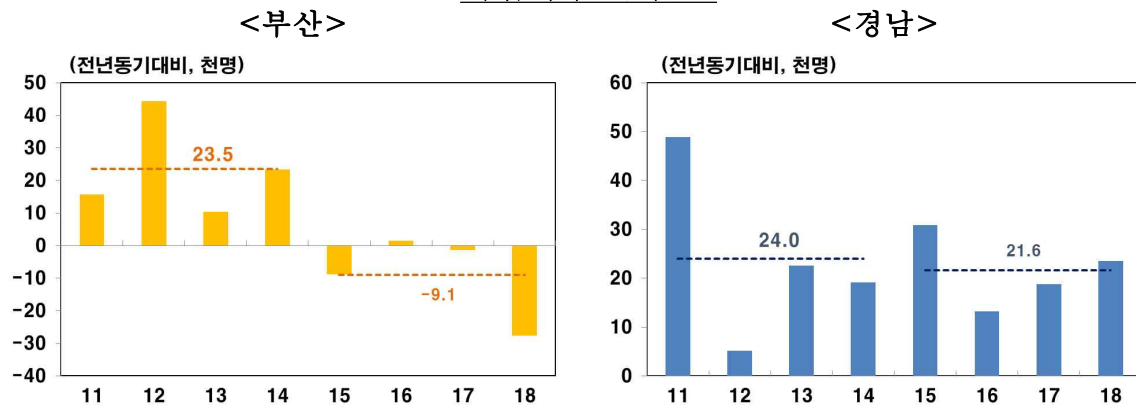
## Ⅱ. 최근 부산·경남지역의 고용변화 요인분해

### 1

### 고용동향

- 2015년 이후 고용동향을 전체적으로 보면, 부산은 취업자수가 연평균 0.9만명 감소하고, 경남은 2.2만명 증가하여 대조적인 모습을 보임

#### 취업자수 증감<sup>1)2)</sup>



주 : 1) 2015~2018년중 연평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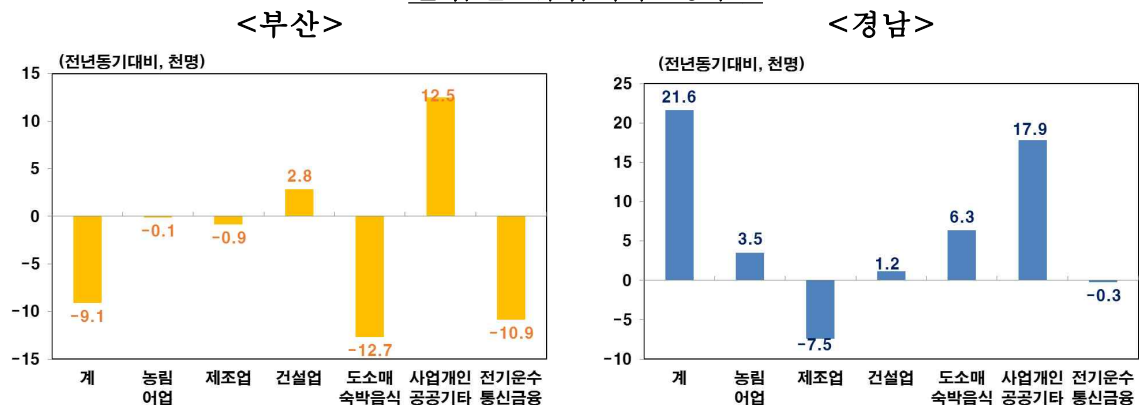
2)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는 조사대상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집계

자료 :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

- 산업별로 보면 부산·경남은 공통적으로 제조업이 감소하고, 사업·개인·공공 서비스업 등은 크게 증가

- 개별적으로는 부산은 도소매·숙박음식업,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업에서 큰 폭 감소하고, 경남은 농림어업, 도소매·숙박음식업에서 증가

####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<sup>1)</sup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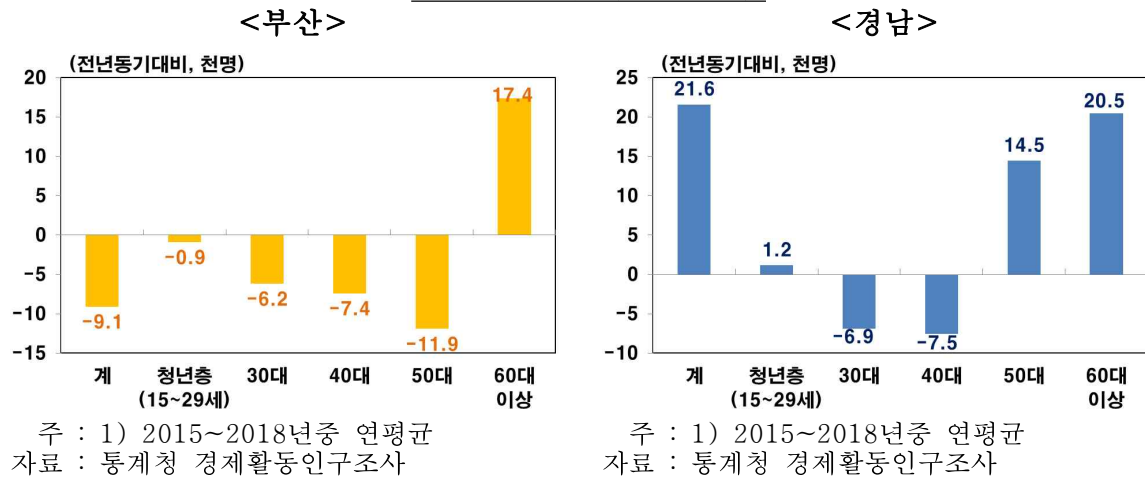
주 : 1) 2015~2018년중 연평균

자료 :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

□ 연령별로 보면 공통적으로 30대 및 40대가 감소하고, 60대 이상이 증가

○ 다만 50대의 경우 부산은 큰 폭 감소한 반면 경남은 큰 폭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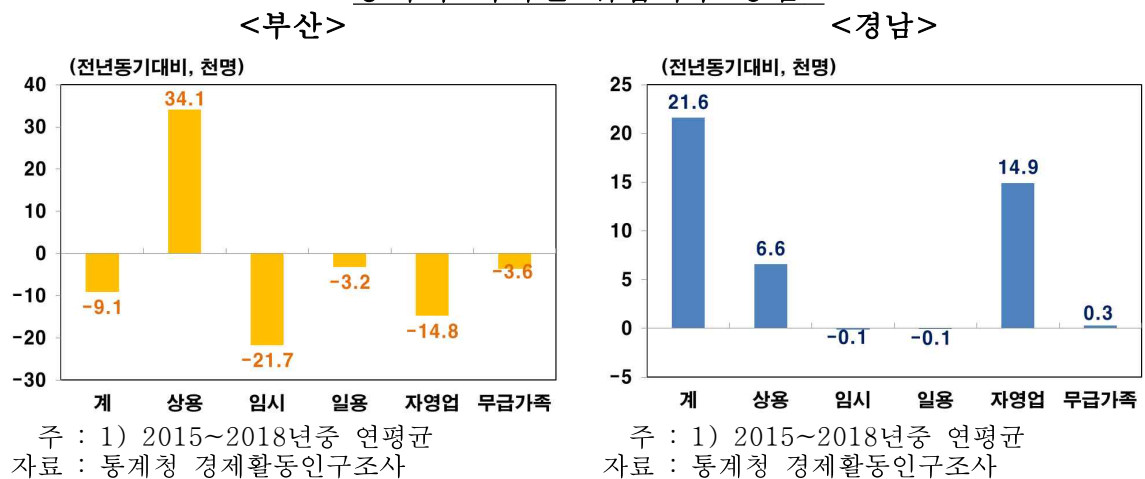
###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<sup>1)</sup>



□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부산·경남 공통적으로 상용직이 증가

○ 다만 부산은 임시근로자와 자영업자가 큰 폭 감소하였으나 경남은 자영업자가 오히려 큰 폭 증가

###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수 증감<sup>1)</sup>



## (고용변화 요인)

□ 고용변화 요인은 다음 방법론<sup>1)</sup>에 따라 ① 인구, ② 경제활동참가율, ③ 취업률 등 3개 요인으로 분해할 수 있음(FRB of Kansas City(2006), UNDP(2015) 등)

- 고용은 인구, 경제활동참가율, 취업률로 분해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‘<참고2> 고용변화 요인분해 모형’을 참조

$$E_t = P_t \times \frac{L_t}{P_t} \times \frac{E_t}{L_t} = P_t \times l_t \times e_t$$

( $E_t$  = 취업자수,  $P_t$  = 15세 이상 인구,  $L_t$  = 경제활동인구,  $l_t$  = 경제활동참가율,  $e_t$  = 취업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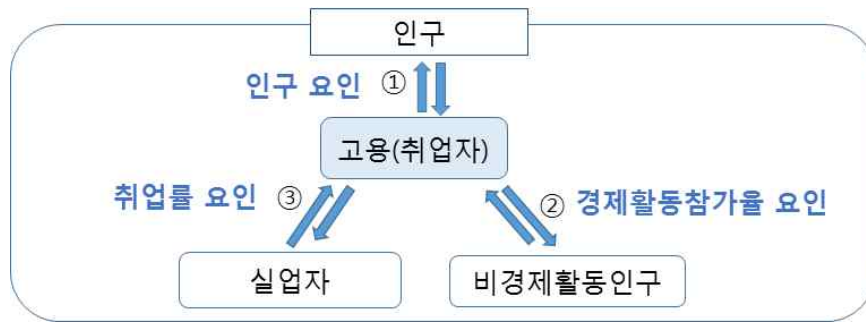
- ① 인구요인은 자연인구 증감, 지역간 인구이동 등으로 인한 고용변화를 의미
- ② 경제활동참가율 요인은 정부일자리 정책, 노동시장 잔류 변화 등으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로의 순이동 변화를 의미
- ③ 취업률요인은 신규 노동수요, 노동이동성, 비자발적 해고 증감 등으로 인한 실업자에서 취업자로의 순이동 변화를 의미

## 고용변화 배경

요인	고용증가 배경	고용감소 배경	성격
인구 요인	인구 → 취업자 ·자연인구 증가 ·인구 순유입	·자연인구 감소 ·인구 순유출	사회적 사회적
경 제 활 동 참 가 율 요인	비경제활동인구 → 취업자 ·정부일자리 정책 ·고령층, 여성 등 경제 활동참가성향 증가 ·부가노동자 효과	·정부일자리 정책 ·고령층, 여성 등 경제 활동참가성향 감소	정책적 사회적 경기적
취업률 요인	취업자 → 비경제활동인구 ·노동시장 잔류 증가	·노동시장 잔류 감소 ·실망노동자 효과	경가사회적 경기적
취업률 요인	실업자 → 취업자 ·업황 개선으로 신규 노 동수요 증가 ·노동이동성 증가 ·비임금근로자 증가 ·노동시장 효율성 감소	·업황 악화로 신규 노동 수요 감소 ·노동이동성 둔화 ·비임금근로자 감소 ·노동시장 효율성 증가	경기적 경가사회적 경가사회적 사회적
	취업자 → 실업자 ·비자발적 해고 감소	·비자발적 해고 증가	경기적

자료 : 한국은행(2008), 한국노동연구원(1998), IZA(2010), KDI(2012), FRB(2006, 2018), UNDP(2015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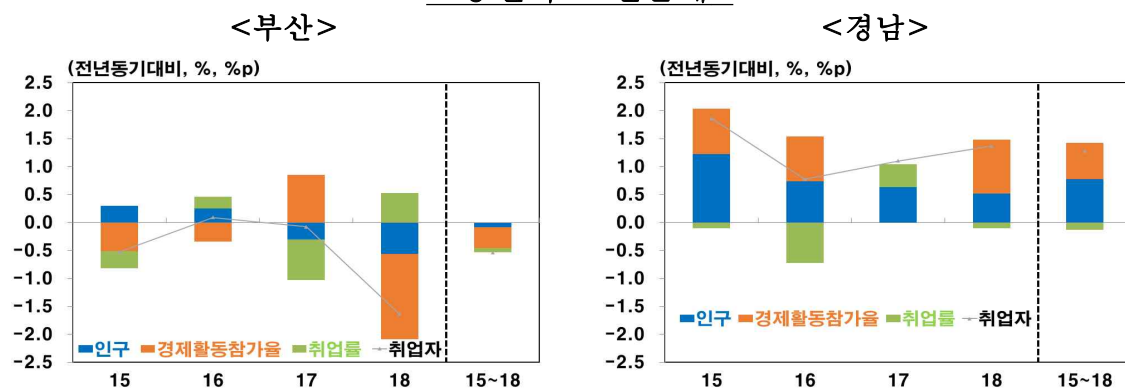
## 고용변화 요인 도식화



### (고용변화 요인 분해결과)

- 2015년 이후 부산지역 고용은 전반적으로 인구, 경제활동참가율, 취업률이 모두 하락하면서 위축된 모습을 보인 반면, 경남지역은 취업률이 하락한 가운데 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면서 확대되는 모습
- 세부적으로 보면 부산은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효과가 크고, 경남은 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

### 고용변화 요인분해<sup>1)</sup>



주 : 1) 부산·경남본부 추정  
 자료 :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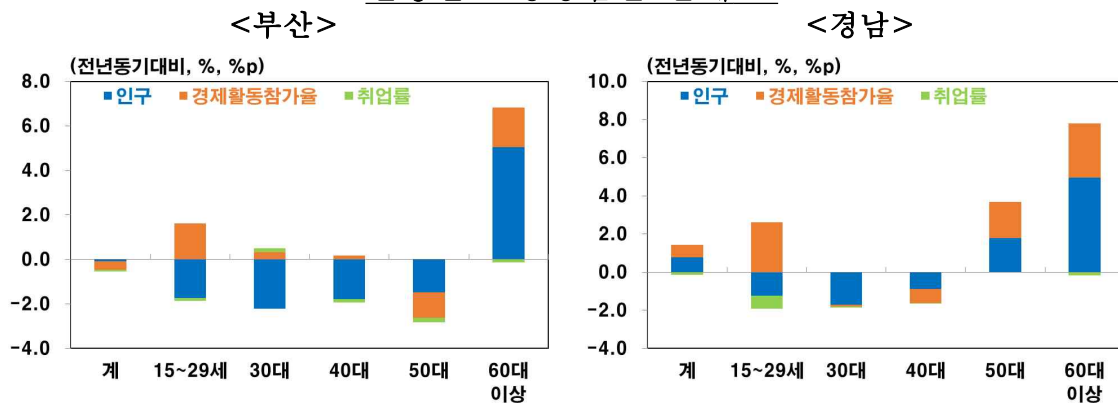
- 연령별로 보면 부산·경남 두 지역 모든 연령층에서 대체로 취업률 요인이 하락\*

\* 일반적으로 인구나 경제활동참가율 요인은 연령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반면, 취업률은 연령별 민감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전연령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침



- 인구 요인은 두 지역 모두 청년층(15~29세)~40대에서 부정적으로, 고령층(60대이상)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난 반면, 50대는 부산은 부정적, 경남은 긍정적으로 나타남
- 경제활동참가율 요인은 두 지역 모두 청년층, 고령층 등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, 50대는 부산은 부정적, 경남은 긍정적으로 나타남

### 연령별 고용증감률 분해<sup>1)2)</sup>



주 : 1) 2015~2018년중 연평균

2) 부산·경남본부 추정

자료 :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

- ▶ 부산은 인구, 경제활동참가율, 취업률이 모두 하락하면서 전체 취업자수가 감소한 반면, 경남은 취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면서 취업자수가 증가
- ▶ 이하에서는 각각의 요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들을 공통부문과 개별부문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

<참고2>

### 고용변화 요인분해 모형

□ 고용변화 요인은 분석범위에 따라 식을 다양하게 분해함으로써 추정 가능

○ 인구모형 (생산연령인구(15세 이상) 변화 고려, 한국은행(2015) 등)

$$E = P \times \frac{E}{P} \quad (E: \text{취업자수}, P: \text{생산연령인구}, \frac{E}{P}: \text{고용률})$$

⇒ 고용증감률 = 생산연령인구(15세 이상) 증감률 + 고용률 증감률

○ 확장모형1 (경제활동참가율 변화 및 취업률 변화 고려, FRB of Kansas City(2006), UNDP(2015) 등)

$$E = P \times \frac{L}{P} \times \frac{E}{L}$$

( $E$ : 취업자수,  $P$ : 생산연령인구,  $L$ : 경제활동인구,  $\frac{L}{P}$ : 경제활동참가율,  $\frac{E}{L}$ : 취업률)

⇒ 고용증감률 = 생산연령인구 증감률 + 경제활동참가율 증감률 + 취업률 증감률

○ 확장모형2 (총인구 변화 고려, 산업연구원(2010) 등)

$$E = T \times \frac{P}{T} \times \frac{L}{P} \times \frac{E}{L}$$

( $E$ : 취업자수,  $T$ : 총인구,  $P$ : 생산연령인구,  $L$ : 경제활동인구,  $\frac{L}{P}$ : 경제활동참가율,  $\frac{E}{L}$ : 취업률)

⇒ 고용증감률 = 총인구 증감률 + 생산연령인구 비중 증감률 + 경제활동참가율 증감률 + 취업률 증감률

○ 기타모형

$$\Delta E = E_{t+1} - \lambda E_t + (\lambda - 1) E_t \quad (E: \text{취업자수}, \lambda: \text{산출량 증가비율})(\text{한국은행}(2006) \text{ 등})$$

⇒ 고용증감 = 경기적 요인(산출량 증감) + 구조적 요인(기타 증감)

$$\Delta E = i_{t+1} X_{t+1} - i_t X_t \quad (E: \text{취업자수}, i: \text{고용계수}, X: \text{총산출})(\text{한국은행}(2008) \text{ 등})$$

⇒ 고용증감 =  $\sum$  산출변화요인

□ 본고에서는 경제활동상태 이동변화(Labor force status flows)\*를 직관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‘확장모형1’을 활용하여 분석

\* 생산연령인구, 비경제활동인구, 실업자로부터 취업자로의 순이동

### Ⅲ. 요인별 변화배경 비교분석

####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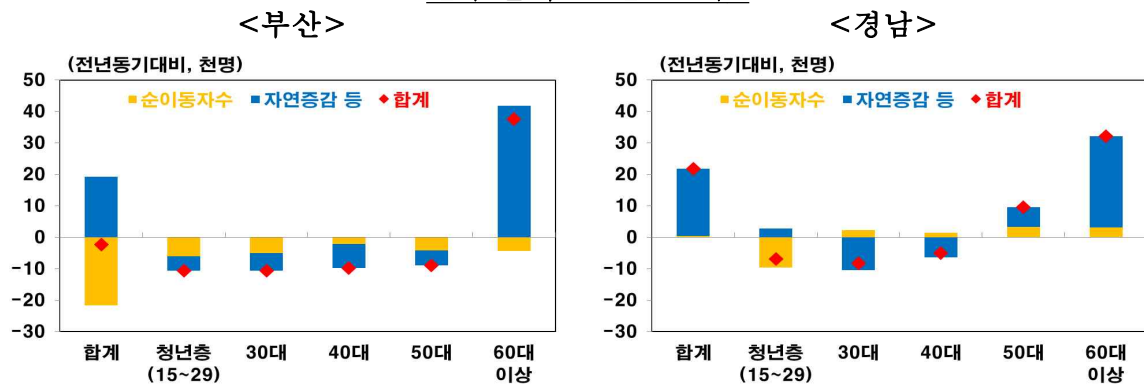
#### 인구 요인 변화배경

- ◆ 공통적으로 자연인구의 고령화, 청년층(15~29세)의 서울·경기로의 인구 유출 등이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쳤으며, 개별적으로는 중장년층(30대이상)의 권역(부산-경남)내 이동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침

#### (자연인구의 고령화(공통배경))

- 순이동자수 등을 제외한 자연인구 증감을 보면, 부산·경남 40대 이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, 60대 이상이 크게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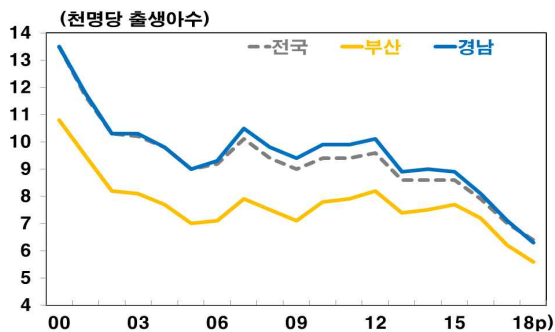
#### 인구변화 요인 분해<sup>1)</sup>



주 : 1) 2015~2018년중 증감 연평균  
자료 :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, 국내인구이동통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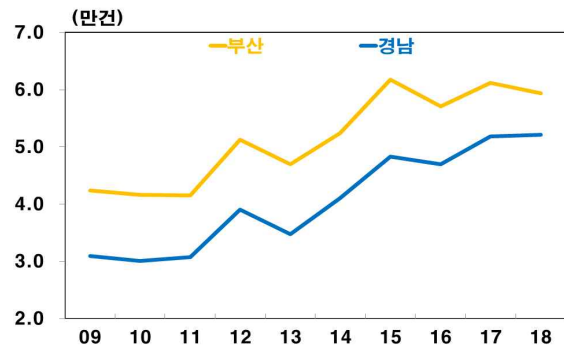
- 이는 부산·경남 두 지역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베이비부머 세대(1955~1963년생)가 2015년부터 60대에 진입한 데 기인

#### 초출산율<sup>1)</sup>(부산, 경남)



주 : 1) 15세 이하도 포함(연령별 미분류)  
자료 : 통계청 인구동향조사

#### 60세 유입 인구(부산, 경남)



자료 :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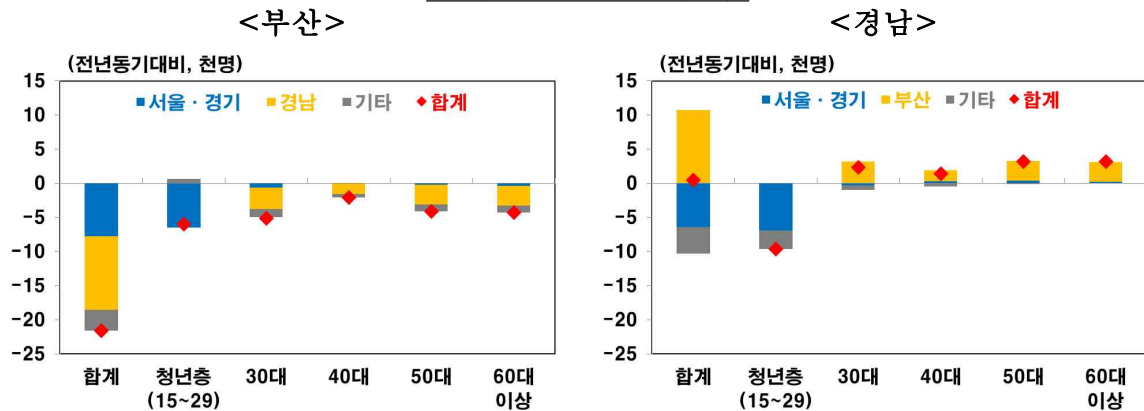
## (청년층의 서울·경기로의 인구유출(공통배경))

- 부산과 경남 청년층(15~29세)의 서울·경기로의 인구순이동이 증가
- 지역내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\*가 부족하고 취업준비과정에서의 정보도 수도권에 집중\*\*되어 있는 데 주로 기인

\* 부산과 경남 상용직의 평균임금은 각각 전국의 89.6%, 94.4% 수준

\*\* 예를 들어 취업박람회 개최건수(JOB815, 19.5월) 중 67.9%가 수도권에 집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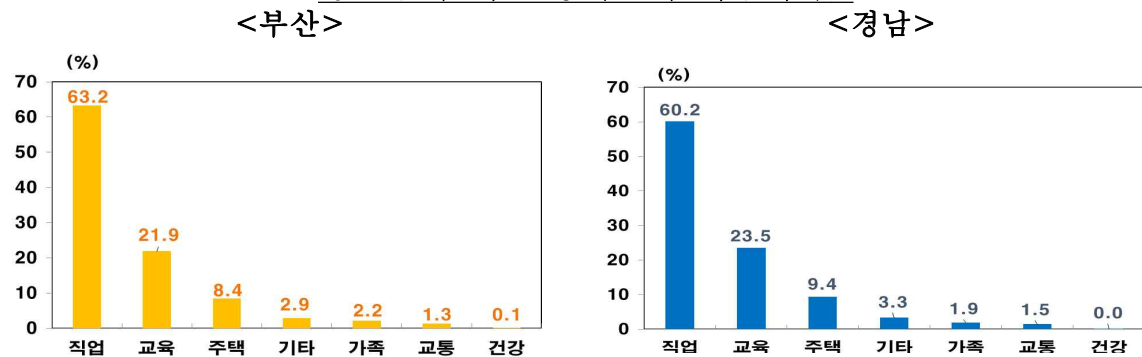
### 지역별 인구 순이동<sup>1)</sup>



주 : 1) 2015~2018년중 증감 연평균  
자료 :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

- 서울·경기로 이동한 청년층의 이동사유를 보면 직업(취업, 사업, 직장이전 등)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(부산 63.2%, 경남 60.2%)

### 청년층의 서울·경기로의 이동사유<sup>1)</sup>



주 : 1) 2018년 기준  
자료 :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

## (중장년층의 권역내(부산-경남) 이동 증가(개별배경))

□ 중장년층(30대 이상)의 경우 부산에서 경남 김해, 양산 등으로의 순인구이동이 증가

○ 경남 김해, 양산은 부산과 인접지역으로 부산과의 통근이 용이\*할 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로 주거지역이 형성\*\*됨에 따라 부산에서 인구이동이 활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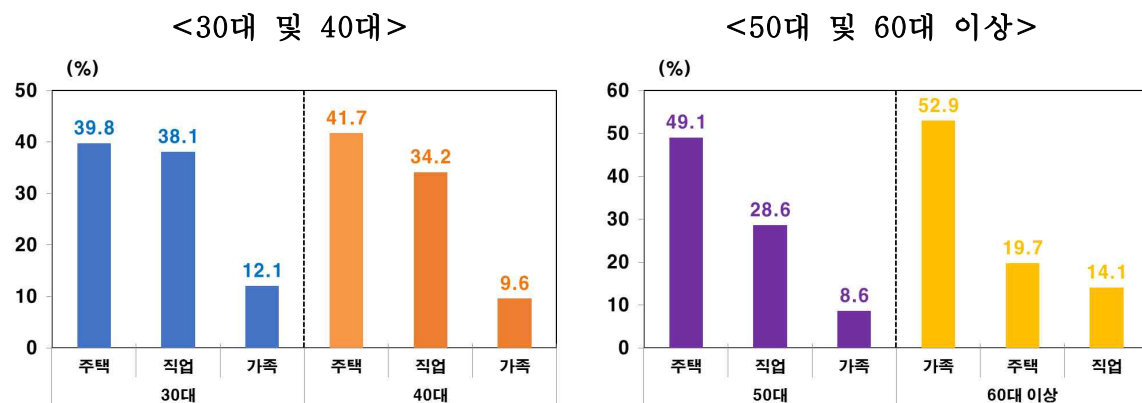
\* 부산-김해 경전철 개통(2011년), 부산 지하철 2호선 양산역 연결(2008년) 등

\*\* 양산신도시 개발 계획(양산물금 택지개발지구, 1994년~2016년)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형성되면서 양산시 인구도 2015년~2018년중 15.3% 증가

○ 부산에서 경남으로의 인구이동 사유를 보면, 30~50대에서는 주택\*(주택 구입, 계약 만료, 집세, 재개발 등)을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하였으며, 60대 이상은 가족(가족과 함께 거주, 결혼, 분가 등)을 주된 이유로 응답

\* 김해시와 양산시의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부산의 73.1%, 60.0% 수준  
(2015~2018년 평균, 한국감정원)

### 연령별 부산에서 경남으로의 이동사유<sup>1)</sup>



주 : 1) 2018년 기준  
자료 :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

## 2

## 경제활동참가율 요인 변화배경

- ◆ 공통적으로 정부 일자리 정책, 노동시장 잔류 증가 등이 청년층·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쳤으며, 개별적으로는 부산의 실망노동자 효과, 경남의 부가노동자 효과 등이 50대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침

## (정부 청년층·고령층 일자리 정책(공통배경)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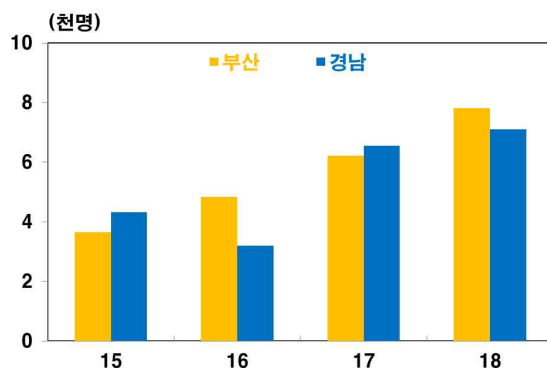
- 부산·경남 두 지역 모두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층·고령층 일자리 정책\* 등으로 해당연령층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취업자로 이동

\* 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,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, 청년구직활동지원금, 노인일자리사업,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이와 별도로 부산시는 3.6만 개, 경남은 3.2만개(2018년중)의 단기 노인일자리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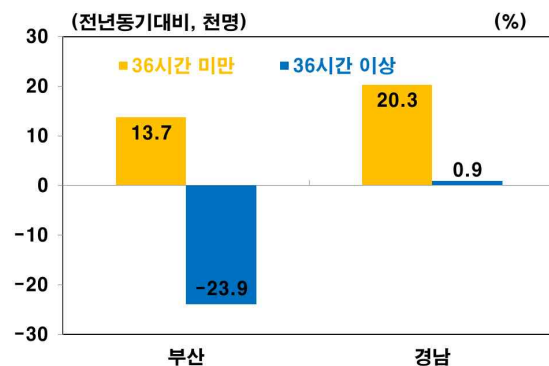
- 청년층(15~29세)은 공공부문 신규채용일자리 확대 등으로 경제활동참가가 증가
- 고령층(60대이상)은 정부정책에 따른 단기일자리(36시간 미만) 증가\*로 경제활동유입이 증가

\* 증가한 단시간일자리(36시간 미만)중 고령층 비중은 부산이 82.8%, 경남이 59.3%를 차지(2016~2018년 연평균,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)

청년층 공공행정업 취업자수



자료 :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

취업시간별 고용 증감<sup>1)2)</sup>(부산·경남)

주 : 1) 2015~2018년중 연평균  
자료 :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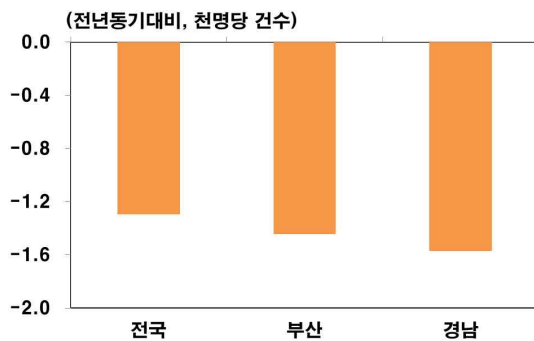
## (청년층·고령층의 노동시장 잔류 증가(공통배경))

□ 청년층은 혼인 및 출산율이 크게 감소하면서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(가사, 육아 등)로 이동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지속

□ 고령층은 소득 및 순자산이 낮아\* 노후대비를 위하여 노동시장에 잔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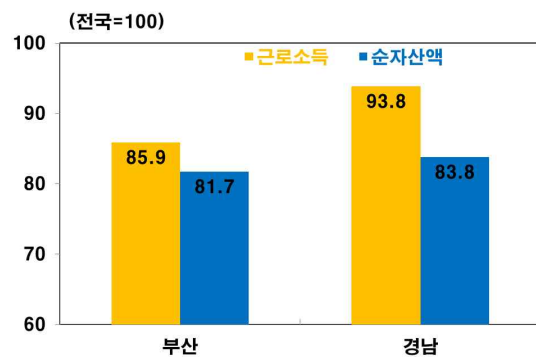
\* 부산·경남 가계소득은 각각 전국대비 85.9%, 93.8% 수준(2015~2018년중)이며, 순자산액은 81.7%, 83.8% 수준

**청년층 여성 혼인율  
증감<sup>1)2)</sup>(부산·경남)**



주 : 1) 2015~2018년중 연평균  
2) 5세별 혼인율을 가중평균하여 추  
정  
자료 : 통계청 인구동향조사, 주민등록인구현황

**소득 및 순자산 수준<sup>1)</sup>(전국대비)**



주 : 1) 2015~2018년중 연평균  
자료 :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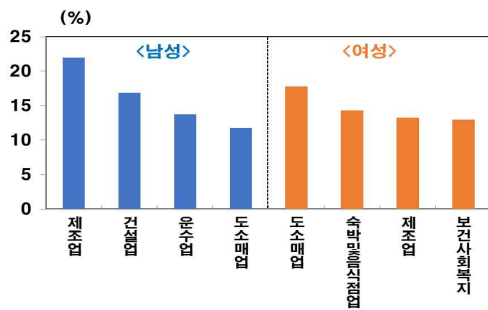
## (50대 부산 실망노동자 효과, 경남 부가노동자 효과(개별배경))

□ 부산의 50대는 제조업 고용 위축과 함께 고용비중이 높은 도소매·숙박음식업 등의 업황부진으로 취업가능성도 낮아지면서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이 증가(실망노동자 효과\*)

\* 취업가능성이 낮아지면 경제활동 포기가 증가하는 현상(Discouraged-worker effec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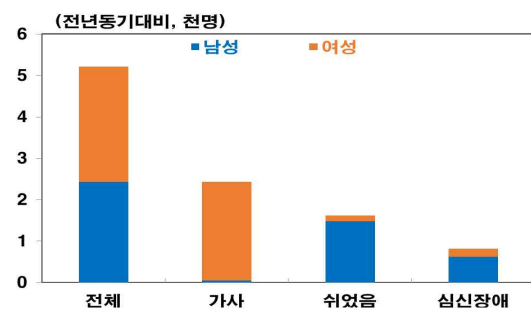
○ 부산지역 50대 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를 보면 여성은 ‘가사활동’, 남성은 ‘쉬었음’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

50대 취업자 비중<sup>1)</sup>(부산)



주 : 1) 2018년 상반기 기준  
자료 :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

50대 비경제활동상태 증감<sup>1)</sup>(부산)



주 : 1) 2015~2018년 상반기중 평균  
자료 :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

- 이와 더불어 부산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아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이동도 증가

□ 경남의 50대는 제조업 고용 위축으로 가계소득이 감소\*하면서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숙박음식업\*\* 등의 취업자로 이동이 증가(부가노동자 효과\*\*\*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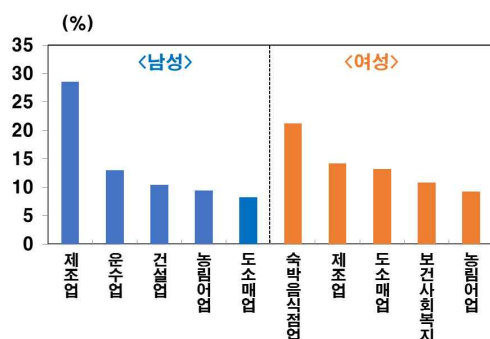
\* 경남 근로소득은 2017년 2.0% 감소한 데 이어 2018년에도 5.6%감소(가계금융복지조사)

\*\* 경남 50대 고용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여력이 있는 상황

\*\*\* 실직 등으로 가계소득이 감소하면서, 소득보전을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현상(Add-worker effec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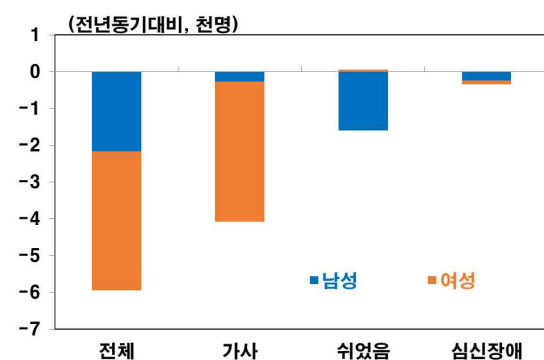
- 경남지역 50대 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를 보면 여성을 중심으로 ‘가사활동’, 남성을 중심으로 ‘쉬었음’이 크게 감소하여 부산과 대조적인 모습

50대 취업자 비중<sup>1)</sup>(경남)



주 : 1) 2018년 상반기 기준  
자료 :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

50대 비경제활동상태 증감<sup>1)</sup>(경남)



주 : 1) 2015~2018년 상반기중 평균  
자료 :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



## 3

## 취업률 요인 변화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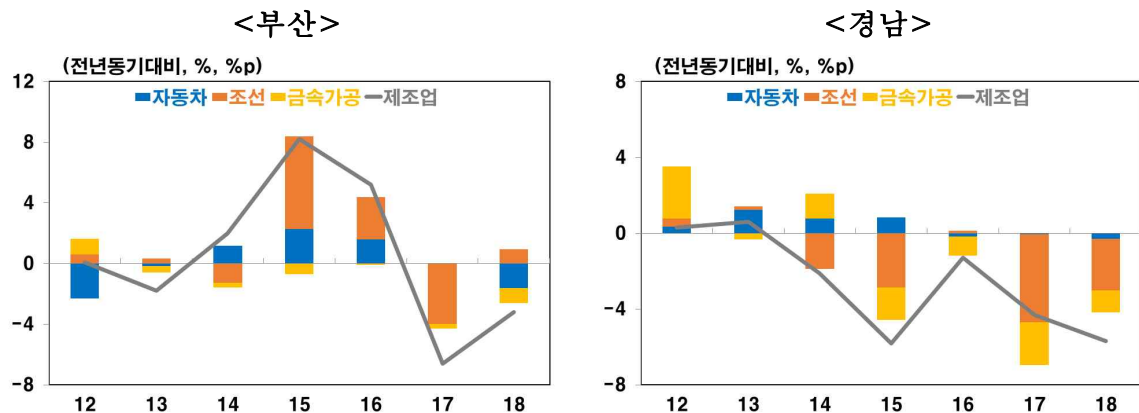
- ◆ 공통적으로 주력산업 노동수요와 권역내 노동이동 감소, 보건사회복지업 노동수요 증가 등이 취업률에 영향을 미침
- ◆ 개별적으로는 부산의 경우 숙박음식업 노동수요 위축, 경남의 경우 숙박음식업 및 농업 비임금근로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침

## (제조업 노동수요 위축 및 권역내 노동이동 감소(공통배경))

- 부산과 경남은 최근들어 조선업, 조선기자재(금속가공), 자동차 등의 업황 부진으로 비자발적 해고\*가 증가하고 신규노동수요가 감소

\*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자수가 부산(2015년 7.0만건→2018년 8.4만건)과 경남(6.0→7.4) 모두 크게 증가(한국고용정보원)

- 부산은 2017년 이후, 경남은 2014년 이후 제조업 생산지수가 감소세
  - 부산은 2017년은 중견조선사 구조조정으로, 2018년은 르노삼성자동차의 판매 악화 및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업 생산 감소
  - 경남은 2014년 이후 대형조선사 구조조정 및 조선업 부진 지속 등으로 제조업 생산이 크게 감소

제조업 업종별 생산기여도<sup>1)2)3)</su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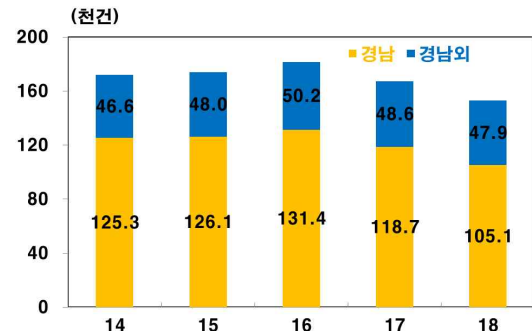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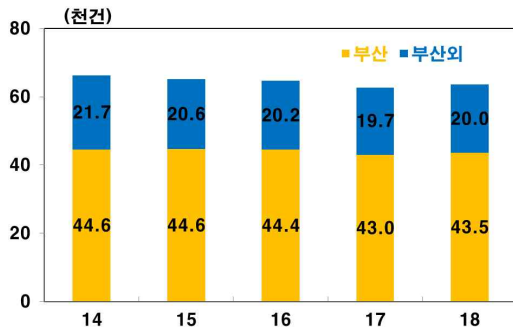
주 : 1) 제조업은 증감률, 세부업종은 기여도, 2) 조선은 기타운송장비 기준  
 3) 조선기자재는 금속가공업에 상당포함  
 자료 :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

- 한편, 두 지역의 제조업 실직 임금근로자\*들의 지역내 재취업(노동이동)이 최근 감소하면서 지역내에서 실업자에서 취업자로의 진입이 제약\*\*

\* 한국고용정보원 피보험자 통계에는 일용직, 자영업자가 일부 포함되나 가입자수가 적어 대부분 상용 및 임시 임금근로자로 해석

\*\* 제조업 중 조선업의 재취업 경로는 ‘<참고3> 조선업 종사자의 재취업 동향’을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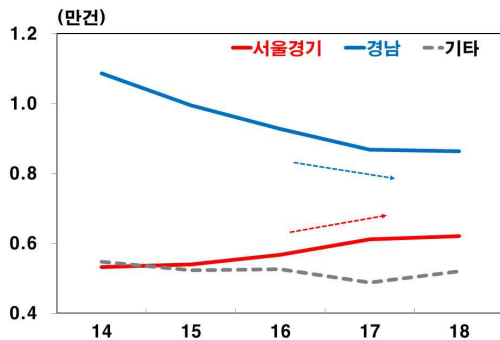
### 동일지역내 제조업 근로자 재취업 추이 <부산> <경남>



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 경력재취득자 통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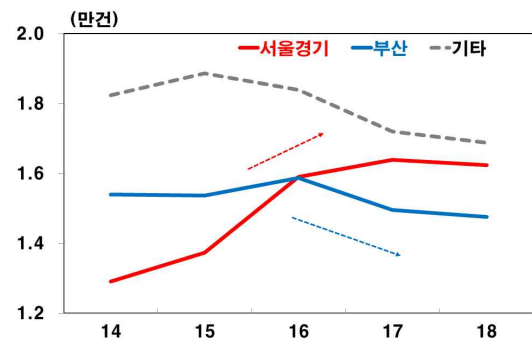
- 지역 외의 경우에도 권역내(부산,경남)보다는 서울·경기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함으로써 권역내 고용위축 완화기능이 제약

### 부산 제조업 근로자의 재취업 추이 (부산외지역)



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 경력재취득자 통계

### 경남 제조업 근로자의 재취업 추이 (경남외지역)



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 경력재취득자 통계

###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 및 재취득 현황

(만건, %)

지역	구분	2014	2015	2016	2017	2018
부산	피보험자 상실(A)	6.8	6.8	6.9	6.7	6.6
	지역내외 재취업(B)	6.6	6.5	6.5	6.3	6.4
	B/A	97.8	96.0	93.9	93.8	95.9
경남	피보험자 상실(A)	18.4	18.7	20.2	18.1	14.2
	지역내외 재취업(B)	17.2	17.4	18.2	16.7	15.3
	B/A	93.3	92.9	89.8	92.4	108.0

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 경력재취득자, 고용보험 통계

- 한편 제조업 실직 근로자는 서울·경기 이동시 사업시설관리업, 도소매업 등으로 재취업하면서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한 지역 잠재 노동력 손실도 큰 상황

재취업 경로별 업종 비중<sup>1)2)</sup>

		(%)							
이동전	이동후	비중	전체	제조업	사업시설	도소매	숙박음식	건설	보건복지
부산 제조업	부산	<68.6>	100.0	67.9	4.0	8.8	3.1	2.2	3.5
	경남	<13.9>	100.0	72.3	3.3	6.7	2.7	2.4	6.7
	서울경기	<9.4>	100.0	23.0	27.4	19.8	6.2	4.7	1.4
경남 제조업	경남	<70.8>	100.0	82.6	2.5	3.2	1.5	1.4	1.9
	서울경기	<9.7>	100.0	27.1	17.8	17.7	6.9	6.4	1.1
	부산	<9.1>	100.0	48.5	8.2	12.5	6.0	4.7	3.2

주 : 1) 2016~2018년 평균, 2) < >내는 재취업 지역 비중

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 경력재취득자 통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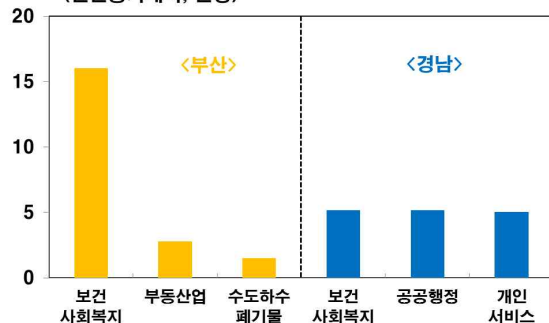
### (보건사회복지업 노동수요 증가 및 운수·금융업 감소(공통배경))

- 부산과 경남 모두 고령층 인구비중 증가, 정부정책 등으로 보건사회복지업 신규 노동수요가 증가하면서 보건사회복지 및 공공행정부문에 실업자에서 취업자로의 이동이 증가
- 반면, 비대면 거래방식 증가, 물류자동화, 해운업 업황 부진 등으로 금융보험업, 운수창고업에서 실업자에서 취업자로의 이동이 감소
- 특히 부산은 한진해운 법정관리(2016.9월) 및 파산(2017.2월) 등의 영향으로 터미널 하역 근로자 등의 고용도 크게 감소

세부 업종별 증감<sup>1)2)</su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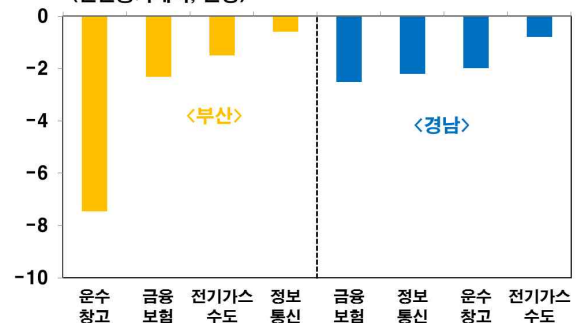
<사업·개인·공공·기타서비스업>

(전년동기대비, 천명)



<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업>

(전년동기대비, 천명)



주 : 1)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세부업종별로 미분류되어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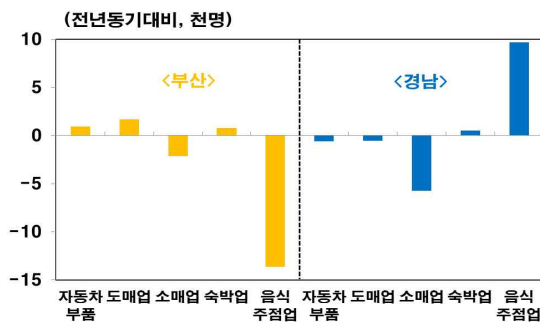
2) 2016~2018년 연평균

자료 :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

## (부산 숙박음식업의 노동수요 감소, 경남 비임금근로자 증가(개별배경)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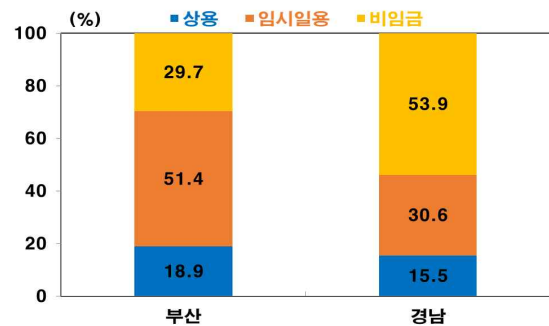
- 숙박음식업의 경우 부산은 업황 악화 등에 따른 신규 노동수요 감소로 실업자에서 취업자로의 이동이 제약된 반면, 경남은 자영업자로의 진입이 증가
- 부산의 숙박음식업은 이미 시장이 포화상태인 데다 내수부진,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음식주점업을 중심으로 업황이 크게 악화
- 이와 더불어 부산의 숙박음식업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 등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

**도소매·숙박음식업 세부업종 고용증감<sup>1)2)</sup>**



주 : 1)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세부업종별로 미분류되어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  
2) 2016~2018년 연평균  
자료 :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

**숙박음식업 종사자 지위 구성<sup>1)2)</sup>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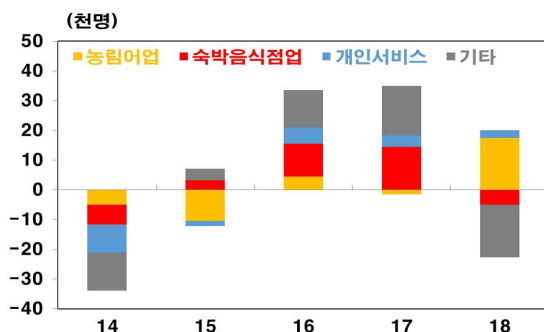
주 : 1)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세부업종별로 미분류되어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  
2) 2018년 상반기 기준  
자료 :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

- 경남은 실직자 등이 상대적으로 고용여력이 남아있는 숙박음식업 자영업자로 활발히 유입

— 경남지역 비임금근로자(자영업자+무급가족종사자)는 2016~2017년중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\*,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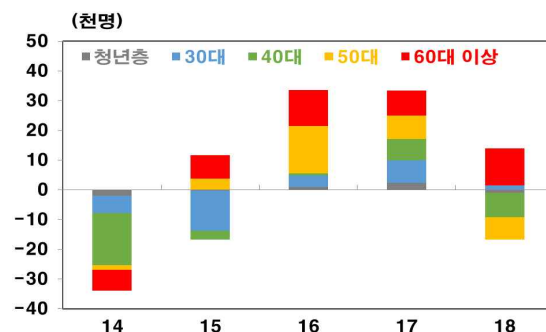
\* 숙박음식업 비임금근로자는 2016~2017년 중 자영업자(70.4%)를 중심으로 증가

**비임금근로자 업종별 증감(경남)**



자료 :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

**비임금근로자 연령별 증감(경남)**



자료 :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

□ 농업의 경우 부산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경남은 2018년중\* 실업자에서 취업자로의 진입이 활발

\* 경남지역 농림어업 취업자수 전년동기대비 증감 : 2015년 -11.3천명 → 2016년 6.9천명 → 2017년 -3.3천명 → 2018년 21.8천명

○ 경남 농업 고용은 고령층(60대이상), 무급가족종사자,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

— 주로 가사에 종사하던 고령층 여성이 경기 악화에 따라 경제활동에 참여하였으나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무급 가족 근로에 참여

— 정부의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\* 및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 등록 참여 홍보\*\* 등의 정책에 영향을 받아 농업부문 여성 종사자수가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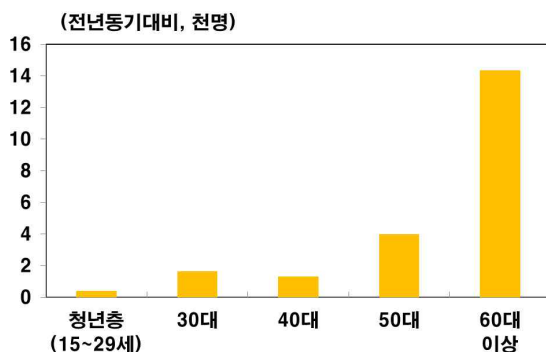
\* 경상남도는 2017년부터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건강·문화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(2018년 기준 1인당 연 10만원, 지원대상 2만 명)

\*\*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(2018.1월)에 따라 경영주 동의절차 없이 여성 농업인 본인이 직접 공동경영주로 등록 가능하도록 절차가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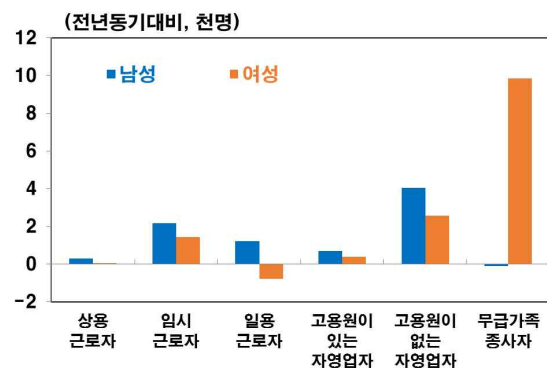
○ 또한, 실직, 은퇴 등으로 50대이상 남성이 농업부문 영세 자영업자\*로도 일부 유입

\* ‘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’증가 인원 중 50대이상 남성이 77.2%를 차지

농림어업 연령별 증감<sup>1)2)</sup>(경남)



농림어업 성별·종사자지위별 증감<sup>1)2)</sup>(경남)



주 : 1)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업종별·지위별로 미분류되어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

2) 2018년 기준

자료: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

- 인구 측면에서는 향후 신도시 효과 완화 등으로 부산에서 경남으로의 인구이동이 점차 완화될 가능성은 있으나 저출산,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자연인구의 고령화 및 청년층 유출 완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
- 경제활동참가율 측면에서는 향후 50대의 실망노동자 및 부가노동자 효과가 경기애 따라 변화되는 가운데 혼인·출산을 저하, 고령층 소득·자산 제약 등이 청년층·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당분간 높일 가능성
- 취업률 측면에서는 향후 조선업 업황 개선 등으로 제조업 노동수요 부진이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권역내 노동이동성 제약, 숙박음식업 경쟁심화 등이 취업률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
- ⇒ 최근 부산·경남 두 지역 고용시장 변화로 볼 때 지역경제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용여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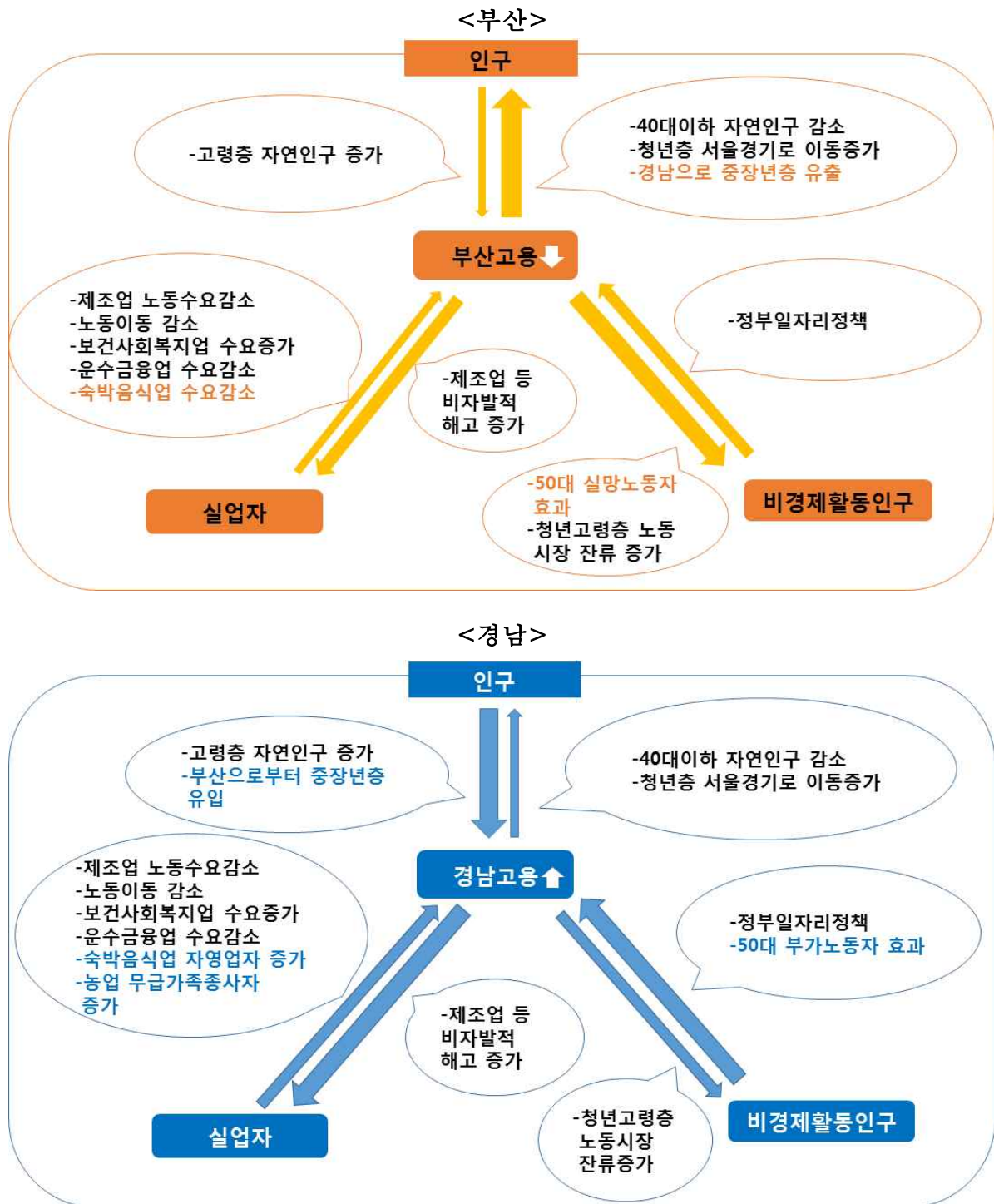
최근 부산·경남 고용변화 배경(2015~2018년)<sup>1)2)</sup>

요인	요인변화		요인변화 배경		
	부 산	경 남	공통배경	부산	경남
인구	↓	↑	·고령층 자연인구 증가(+) ·40대이하 자연인구 감소(-) ·청년층의 서울경기로의 인구유출(-)	·경남으로 순유출(-)	·부산에서 순유입(+)
경제활동 참가율	↓	↑	·정부 일자리 정책(+) ·청년·고령층 노동시장 잔류 증가(+)	·50대실망노동 자효과(-)	·50대부가노 동자효과(+)
취업률	↓	↓	·제조업 신규노동수요 위축 및 권역내 노동이동 감소(-) ·운수·금융업 신규노동수요 감소(-) ·비자발적 해고 증가(-) ·보건사회복지업 신규노동수요 증가(+)	·숙박음식업 노동수요 위축(-)	·숙박음식업 자영업자, 농업무급 가족종사자 증가(+)

주 : 1) ↑는 상승, ↓는 하락

2) (+)/(-)는 고용 증가/감소 배경

## 최근 부산·경남 고용변화배경 도식화<sup>1)</sup>



주 : 1) ↑는 인구, 실업자, 비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(고용)간 이동방향을 의미하며 굵기는 최근 개별이동의 변화정도를 나타냄



## IV. 정책적 시사점

---

### (부산·경남 공동 대응 부문)

- [공동성장 전략강화] 산업·학계·지자체간 협력네트워크 구축, 고부가가치 제조 및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부산과 경남의 주력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높임으로써 권역내 노동수요를 확충
  - 부산·경남지역은 권역내 대규모 제조업체, 중소기업 소재·부품업체, 대학, 연구소 등 자체적 성장환경을 갖추고 있으며, R&D, 설계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요도 높음
- [노동이동성 강화] 지자체간 일자리 매칭 등 정보교류 확대, 실직자들에 대한 재교육 강화 등을 통해 실직자들이 권역내 유사업종에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인력 보존과 권역내 고용완충기능을 제고
  - 특히 제조업의 경우 부산·경남의 주력 제조업이 유사하고 보완관계를 보이는 만큼 권역내 재취업 기회 확대의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
- [금융지원 강화 및 정보교류 확대] 업황 악화 등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, 지역경제에 대한 지자체, 유관기관간 연구·정보교류 확대 등을 통해 급격한 고용 위축을 완화
  - 한국은행 지역본부도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통한 지역업체 금융지원 강화, 유관기관과의 연구교류 확대 등을 추진중
- [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집중 완화]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등 청년층 선호일자리 육성, 일자리 정보 확충을 통한 청년층의 지역이탈 유인을 해소함으로써 인구 제약을 완화
  - 청년층이 선호하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등을 적극 육성하고,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적용지역 통합 등을 통해 두 지역 학생들의 취업 가능성을 높일 필요



- 청년들이 수도권에 비해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자체를 중심으로 취업박람회 등을 적극 유치하고, 취업준비 모임이 권역내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
- [저출산 완화] 육아부담 및 경력단절 완화 등으로 혼인·출산율을 높임으로써 자연인구 고령화 완화
  - 출산율이 높은 주요국 사례\*를 연구하고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, 유연근무시간제 확대, 보육시설 지원 강화, 출산후 복직시 재정지원강화 등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
  - \* 예를 들어, 스웨덴은 부부합산 480일의 유급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남성도 의무적으로 최소 90일을 사용하여야함

## (부산·경남 개별 대응 부문)

- [부산 : 경제활동참가율 제고] 관광산업 육성, 숙박음식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취업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일 필요\*
  - \* 부산은 전국대비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향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여지가 높음
  -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양 도시로서의 부산, 역사 속의 부산\* 등의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, 숙박업체의 편의성 제고\*\*, 방송·영화 촬영지 제공, 관광업체간 협력을 통한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 등이 필요
    - \* 특히 부산은 일본과의 역사,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민 유입 등 스토리화하기 매우 유리
    - \*\* 부산역-호텔 수화물 운송서비스, 숙박객 대상 무료관광투어 등의 사례 참고
  - 숙박음식업의 고용창출력 감소는 회식이나 모임을 줄이는 사회적 변화, 외식보다 간편식, 배달음식 등을 선호하는 소비패턴 변화에도 기인하므로 기존 업체들이 환경변화에 대응하도록 자영업 컨설팅을 강화
  - 또한 인건비 및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증대가 필요

□ **[경남 :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]** 최근 고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농업 무급가족종사자, 숙박음식업 자영업자의 고용 증가세는 경쟁심화, 저생산성 등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만큼 이들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필요

○ 경남 농업의 성장률 및 고용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현재의 정책 효과 등으로 인한 고용 증가세는 지속되기가 어려워 보이므로 적정분야로의 재취업 지원으로 경쟁을 완화하고 농업의 법인화, 차별화된 작물 재배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

○ 숙박음식업도 부산처럼 구조적인 소비패턴 변화, 시장의 경쟁 심화 등으로 고용의 성장추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만큼, 지자체 주도의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, 서비스의 차별화 교육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줄 필요

## **(정부차원의 고용통계 인프라 강화)**

□ **[경제활동상태 변화 통계 구축]** 미국, 유럽과 같이 경제활동상태 이동 변화(Labor force status flows)\*에 대한 통계가 구축될 경우 지역고용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

\* 인구, 실업자,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로의 유입·유출 규모를 매월 발표

○ 현재는 국내에서 관련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연구가 제약

□ **[개별기업 수준의 미시통계 구축]** 지역내 취업률에 큰 영향을 주는 주력 대기업별로 구체적인 협력사 지도를 구축함으로써 업황 변동이 매출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

○ 조선, 기계, 전자 등 주력 대기업에 대한 1~3차 협력사 목록 및 매출의존도 등 기업 간의 연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통계에 포함하고, 실직자를 유추할 수 있는 유사 업체간 고용지도를 작성함이 바람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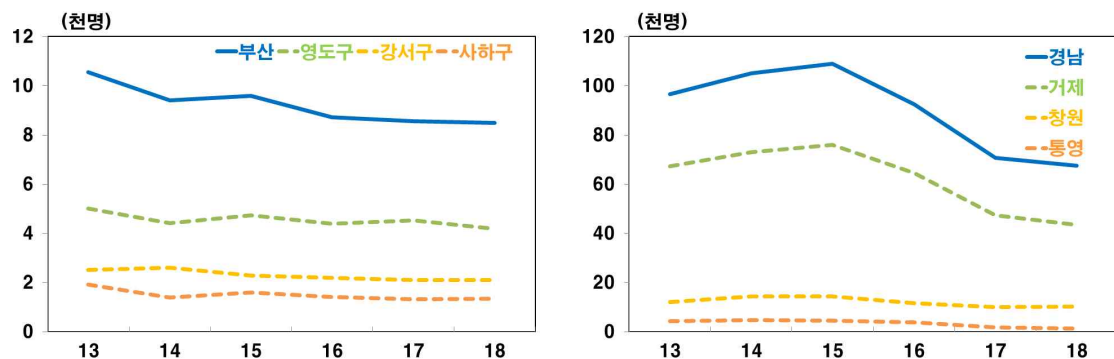
□ **[고용통계 소득부문 보완]** 고용의 양적 증감과 함께 고용의 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고용통계에 “소득구간별 취업자” 등의 지표를 보완할 필요

<참고3>

### 조선업 종사자의 재취업 동향(임금근로자 기준)

- 제조업 중에서도 조선업은 2015년 이후 부진이 지속되면서 부산과 경남지역 고용악화 주요 원인으로 작용
- 부산과 경남지역의 기타운송장비 부문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5년 이후 조선업체가 밀집된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감소세를 지속
  - 경남지역은 생산시 투입인력이 많이 필요한 해양플랜트 부문이 위축되면서 거제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큰 폭 감소

### 기타운송장비(조선업 등)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



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

- 부산과 경남지역 기타운송장비 부문의 재취업 행태를 살펴보면 동일 권역의 동일업종 내 이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
- 서울·경기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동전 종사업종과 무관한 사업 시설관리업, 도소매업, 건설업 등으로 재취업

### 기타운송장비(조선업 등) 종사자 재취업 경로별 업종 비중<sup>1)2)</sup>

기타운송장비(도소매업, 숙박음식점업, 건설업,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)										(%)
이동전	이동후	비중	제조업	(기타운송장비)	사업 시설	도소매	숙박 음식	건설	전문과학 기술서비스	
부산	부산	<61.3>	71.0	49.8	3.7	6.2	1.6	2.3	2.0	
	경남	<20.5>	76.8	50.4	4.0	4.9	1.2	1.6	3.2	
	울산	<4.5>	64.8	45.1	3.6	4.2	0.6	4.8	13.7	
	서울경기	<7.3>	20.5	0.7	24.4	15.2	5.2	10.4	6.2	
경남	부산	<6.0>	42.3	12.9	8.1	12.1	8.8	6.0	4.6	
	경남	<71.3>	88.7	80.3	1.6	1.6	1.0	0.9	1.6	
	울산	<3.6>	82.1	68.0	3.0	1.7	1.1	5.5	2.1	
	서울경기	<10.2>	24.8	0.4	20.8	15.3	8.0	10.9	5.6	

주 : 1) 2016~2018년 평균, 2) < >내는 재취업 지역 비중  
 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 경력재취득자 통계

## <참고문헌>

- 강태수·김정성·이영호(2016), “고용상태 전환율 시산을 통한 최근 노동시장 상황평가”, 「조사통계월보」, 2016-12.
- 배성종(2008), “최근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배경과 시사점”, 「조사통계월보」, 2008-1.
- 임정덕(1998), “부산·경남지역 노동시장과 정책과제”, 한국노동연구원.
- 이영호·박종익(2018), “최근 부산·울산지역 고용 특징 및 시사점”, 한국은행 부산본부·울산본부.
- Bloom, D. E. and M. J. McKenna (2015), “Population, Labour Force and Unemployment: Implications for the Creation of (Decent) Jobs, 1999~2030”, UNDP, *Human Development Report 2015*.
- Clark, T. E. and T. Nakata (2006), “The Trend Growth Rate of Employment : Past, Present, and Future”,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, *Economic Review*, First Quarter 2006.
- Gomes, P. (2010), “Labour Market Flows : Facts from the United Kingdom”,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(IZA), *IZA Discussion Paper*, No. 5327.
- Lee, J. (2012), “Work Flow and Its Cyclical Fluctuations in Korea”, Korea Development Institute(KDI), *Policy Study*, 2012-2.
- Tüzemen, D. and W. V. Zandweghe. (2018), “The Cyclical Behavior of Labor Force Participation”,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, *kcFED Research Working Paper*, 2018-08.